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5월 28일(주일) 제1444호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

6월 21~23일 각 캠퍼스 본당 및 서빙고온누리교회
유기성 목사, 이한영 부총장, 이재훈 목사 강의



사진은 지난해 마리아행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 23:4).

나라와 민족을 위한 여성기도 부흥운동 마
리아행전이 막 오른다. 6월 21일(수)부터 23
일(금)까지 온누리교회 국내 11개 모든 캠퍼
스에서 진행된다. '광야의 힘'을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회가 이어진다. 6월
21일(수)과 22일(목)은 각 캠퍼스 본당에서, 6
월 23일(금)에는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연합기도회를 한다. 21일과 22일 서빙고온누
리교회 본당 집회실황을 각 캠퍼스로 송출한

다.

2023 마리아행전 '광야의 힘'은 다윗의 삶
을 들여다보며 광야에서 동행하시고, 능력으
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축복의 장
(場)이 될 전망이다. 집회 기간 내내 고난 가운
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깨닫도록
돕는 강의와 나라와 민족, 열방과 교회를 위
해 부르짖는 중보기도가 이어질 예정이다. 6
월 21일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 '광
야에서 동행하다', 22일 이한영 부총장(아세
아연합신학대학교) '광야에서 배우다', 23일
이재훈 담임목사 '광야에서 부르짖다'를 주

제로 강의한다.

2023 마리아행전 참가신청은 6월 7일(수)까
지 주일예배와 수요일전여성예배 이후 각 캠퍼
스 로비에 설치되는 접수데스크나 목회행
정실에서 하면 된다. 신청서와 함께 회비 1만
원을 접수하면 된다. 선착순 모집한다.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행사 당일 접수는 받지 않는
다.

문의: 02-3215-3667, 3201

각 캠퍼스 목회행정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

2023 차세대 어드벤처 시작

2023 차세대 어드벤처(Adventure)가 '예수님 이야기: 나는 주의 친구'를 주제로 막 오른다.

교사강습회는 5월 27일(토)부터 6월 10일(토)까지 이어진다. 5월 27일(토) 오후 1시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6월 3일(토) 오후 1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 6월 3일(토) 오전 10시 대전온누리교회 본당, 6월 6일(화) 오후 1시 수원온누리교회 본당, 6월 10일(토) 오후 1시 부천온누리교회 본당, 6월 10일(토) 오후 1시 인천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주제강의 및 기도회, 찬양 강습 등을 한다. 교재 강습은 영역별로 한다.

2023 차세대 여름캠프는 예수님의꿈아 이 7월 초부터 7월 말까지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꿈이자라는땅과 파워웨이브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국내 온누리교회 각 캠퍼스 및 외부에서 열린다. / 홍하영 기자

〈생명의삶〉표지 사진 공모전

6월 30일까지 접수

〈생명의삶〉표지 사진 공모전이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은혜가 담긴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생명의삶〉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 구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1인당 세 작품 이내로 출품할 수 있다. 사진을 제출할 때는 JPG 또는 JPEG 파일, 세로형 사진을 권장한다. 보정 없는 원본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생명의삶〉캠페인 페이지(www.durannoQT.com)로 접수하면 된다. 입상작은 월간 QT지 〈생명의삶〉표지로 사용한다.

문의: durannoQT@duranno.com

달려라풍당은 멈추지 않는다!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올해 달려라풍당에는 성도 3,688명이 참가했다. 캠퍼스별로 진행한 '달려라풍당데이' (스페셜 라이딩)에는 성도 2,140명이 동참했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걷기, 달리기,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운동한 만큼 다음세대를 후원하는 후원챌린지다. 후원금은 6월 2일까지 온누리선교재단 계좌(하나은행 573-910010-98304)로 입금하면 된다. 입금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ex. 홍길동 220507).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Q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으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이 단순하고 명확한 진리를 믿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한 복잡한 질문만 남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세상이 우연한 어떤 작용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연을 기대하고, 우연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분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됩니다. 창조에 대해 우리가 궁금해 하는 것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를 유한한 지식과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조가 불완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모순처럼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또 <창세기> 1~2장 기록이 창조에 대한 모든 지식을 빠짐없이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유한한 인간이 연구를 통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모두 기록할 수 없기에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만 택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창조에 대한 모든 지식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은 문학적인 비유나 상징,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증언이 담긴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에서 ‘하늘과 땅’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과 보이는 모든 세상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세상은 진화론이 유일한 진리인 것처럼 많은 학문으로 높은 성을 쌓고 있습니다.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이 매우 소수이기에 사이비 취급을 합니다. ‘한국창조과학회’ 같은 단체를 과학을 부정하는 사이비 단체처럼 매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 정보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천동설을 믿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은 처형당할 만큼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적 발견들은 도리어 진화가 아닌 창조를 증거합니다. 오묘한 자연의 섭리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 세월 우연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고 믿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전능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설계를 통해서 질서를 따라 창조되었다고 믿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어떤 실험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토대로 증

하늘이 열리다

창 1:6~8, 20~23

명해 가는 것이 과학적 연구방법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진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오랜 세월 우연한 변이 과정을 통해 이 세상이 형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실험합니다. 그러나 진화를 증명할 화석, 유전자 문제 등 중요한 과학적 근거들이 진화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과학적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물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창조주를 거부하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할 때 겸손해야 하고, 창조주의 계획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야 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함입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지 않고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오랜 시간 우연한 진화의 변이에 의해 세상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그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오랜 시간에 걸쳐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진화를 사용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만들고, 순순하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질서 있게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을 어떻게든 부정해보려는 모든 시도를 무너뜨리시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질서 있고, 전능하신 설계에 의해서 창조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3일은 무형의 상태에서 이 세계의 형태와 영역을 창조하셨습니다. 나중 3일은 그 형태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크게는 형태를 만들고 나서 채우는 질서가 나타납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각 3일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날을 보면 땅이 식물을 내고, 여섯째 날에는 땅이 동물을 냅니다.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짝을 이루는 단일한 창조를 하지만,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이 두 가지 측면을 가진 창조를 하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분리된 두 개의 창조를 행하십니다.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을 이루는 창조를 살펴보고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 공간이 생겨 물과 물이 나누어지라’ 하셨습니다”(6절).

둘째 날에 물을 나누심으로 하늘을 만드시고, 물에 거주하는 생물과 하늘의 생물, 곧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물 가운데 공간이 생기도록 물을 나누셨습니다. “물을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없는데 물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살펴보면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고 했습니다. 2절의 ‘땅’은 세 번째 날에 나오는 물이 한꺼번에 모이게 해서 바다를 만들 때 드러난 그 땅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구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전체적인 선언이고, 2절은 그중에 땅의 창조, 즉 지구의 관점에서 창조를 바라보는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땅의 창조를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 또 우리가 거주하지 않는 환경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 이해할 수 없고, 불필요하기에 인간이 거주하는 지구 환경을 중심으로 한 창조에 초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은 지구보다 더 큰 창조의 선언입니다. 그 결과로 지구의 창조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 물로 덮여 있는 형태가 없는 상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절이 천지창조 전체의 선언이면서 동시에 2절 이하에 땅의 창조에 대한 배경이 됩니다. 종교개혁자 장 칼뱅도 1절의 하늘과 땅의 창조에 2절의 ‘물’이라는 원물질의 창조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1절과 2절에 엄청난 시간이 들어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구의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일부만 설명하시고, 2절이 땅의 창조 과정이기에 여기서 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의 창조 이후 물을 나누심으로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 지구의 상태가 물의 상태였습니다. 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게 아니라 물을 나누심으로써 공간과 대기권을 만드셨습니다. 진화론은 항상 단순한 물질로부터 점점 복잡한 것으로 진화한다는 게 가설인데 물(H₂O)은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물보다 미세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 산소, 핵 등은 물보다 훨씬 미세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조화로운 창조의 신비가 남아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수소나 핵으로부터 시작했다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가장 안전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은 복합물질이 물 아니겠습니까? 이 물을 나누심으로 대기권을 만드시고, 세상을 조장하셨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신비하고 놀랍고 합리적인 설명입니다. 물의 분리를 통해서 공간을 창조하셨고, 공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습니다. ‘공간 위의 물’이라고 표현된 것은 창조과학회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언제든지 물이 될 수 있는 수증기 상태의 존재입니다. 물이 기체 상태로 있다가 비가 되는 것처럼, 언제든지 물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기체, 하늘에 떠 있는 상태를 물이라고 표현한 일종의 덮개 효과(Canopy effect)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구를 뒤덮고 있는 수증기의 피가 덮개 효과를 발휘해서 인간이 거주하는데 최적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창세기> 2장 5-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안개가 땅에서 솟아 나와 온 땅을 적셨습니다.”

비가 내리려면 기압골이 있어야 하는데 기압골이 필요 없는 완전한 상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그 자체가 인간이 거주하기에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 크게 바뀌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인간이 800~900년 사는 게 가능했던 이유는 공간 위 물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이 출렁이듯 물이 하늘에 떠다녔다는 뜻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 때 하늘의 물이 쏟아졌다는 것은 공간 위의 수증기 상태의 물이 쏟아져 내림으로써 지구를 보호하는 피가 사라짐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영향을 받게 되고, 추운 곳과 더운 곳이 생기고, 북극과 남극이 생기고,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광야가 생기는 지구 상태에 혼돈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과학적 설명이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나눠서 ‘하늘’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하늘은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이 아닙니다. 그 하늘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우리가 ‘Sky’라고 말하는 하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조를 통해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께서 그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습니다”(시 8: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 줍니다”(시 19:1).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 대기권과 대기권 밖

에 있는 더 넓은 의미의 하늘이라면 우주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역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하늘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신 하나님이 빛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빛과 하늘, 모두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하늘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을 만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도록 하신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조력을 일깨우기 위해서

둘째, 하늘을 창조하심으로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늘, 정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네”라고 한다면 과학적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하늘이 파랗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권 밖으로 가면 파란색이 점점 없어지고 어두워지지 않을까? 공기층이 있기 때문이고, 공기층이 인간을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체 상태의 많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별의 크기가 실제 크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헬리어로 인간을 ‘엔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인류학을 ‘엔트로폴로지(Anthropology)’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엔트로포스라는 말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상상력이 없으면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움직이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며 무한한 우주를 발견하며 인간은 겸손하게 됩니다. 무한한 우주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우주의 광대한 규모를 완전히 표현할 수 있는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으름 되는 태양계의 태양조차 사실은 지금이 평범한 별 하나일 뿐입니다. 은하에 있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고, 그 은하도 수많은 은하 중에 평범한 하나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무한한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우주를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만들었어. 이 모든 것을 너를 위해 만들 만큼 너는 소중한. 그렇게 인간은 고귀한 존재야.”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를 떠나서 달 주위를 맴돈 때가 1968년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브립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의 지표면을 돌면서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달에 올라간 비행사들이 지구로 어떤 교신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지구로 보낸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입니다. 달에 가 봤더니 지구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구 같은 행성이 없는 것입니다. 화성을 가보고, 달을 가보고, 다른 행성을 가봐도 사람이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처럼 완벽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인간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생명을 공급해주시기 위해서

셋째,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신 것은 지구의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공급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기권, 파란 하늘을 순수하게 건조한 상태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무색, 무미, 무취의 상태의 기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질소 78%, 산소 21%, 기타 1%입니다. 80km 안에 일정하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산소보다 더 많은 것이 질소입니다. 대기 중에 가장 풍부한 기체인 질소가 지구상에 사는 생명체들의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비가 오면 식물들이 살아나지 않을까? 질소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면 질소의 화학작용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를 뿜어 냅니다. 그래서 비온 뒤에 숲을 가면 그 맑은 공기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기체 속에 있는 질소를 통해 식물들이 공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천둥 번개를 무서워합니다. 번개가 칠 때 온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것이 질소를 반응시켜서 화학작용에 의해 더 풍성한 영양을 공급합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개의 빛으로 먹을 것을 넉넉히 공급하신다.”

번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지구 주변에 운석들이 떨어지는데 대기권이 없다면 그대로 떨어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빗물도 떨어질 때 대기권이 없으면 바위를 뚫을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빗물을 기분 좋게 맞을 수 있는 것은 공기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과정, 오랜 시간 지나다보니 어떻게 됐다고 믿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보며 완벽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어떤 한 가지 종에서 모든 종이 나왔다고 하는데, 대기권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공기도 진화합니까? 생명이 거주하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환경과 빛이 어떻게 진화했는지 설명하는 진화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뿐이지, 발견할 뿐이지, 빛의 기원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빛을 창조하신 분을 설명합니다. 물을 나눔으로, 대기권을 창조하심으로 생명이 유지될 수 있는 기초 환경을 만드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다섯째 날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래 물과 위의 물, 대기층과 공간을 형성하심으로써 그 공간을 나는 새들을 창조하셨고, 물속에 다니는 물고기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에는 생물이 번성하고 새들은 땅 위 하늘에서 날아다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 생물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온갖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온갖 날개 달린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20-21절).

‘그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다윈의 종의 기원이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하나에서 많은 종류가 나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종류대로’였습니다. 각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지 하나에서 여러 종류가 나온 게 아닙니다. 진화론이 결정적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류와 조류입니다. 물고기와 새는 진화론으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류와 조류를 창조하신 게 정말 기묘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진화론이 나올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물고기로 존재하는 종류와 하늘을 나는 종류가 다르게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어류와 조류가 섞이는 화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인 화석은 지구적인 홍수를 증거할 뿐입니다.

세상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진화하며 질서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원래 오묘하고 복잡하고 광대한 것이 조화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의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점차 망가졌을 뿐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조화로운 창조의 신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시며,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네오마르크시즘이 기독교에 끼친 악영향

네오마르크시즘(Neo-Marxism)은 마르크스주의의 개념을 20세기 사회와 경제에 맞게 새롭게 수정한 것이다. 이 이념은 이전의 마르크스주의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경제주체인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대립만 강조했다. 그러나 네오마르크시즘은 이를 확장해서 다양한 집단 즉, 인종, 성,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한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강조한다. 네오마르크시즘은 대안적인 사회체제와 경제모델을 제시하지만, 그 근원이었던 마르크스주의처럼 자유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불공정한 권력 구조와 계급 간의 대립을 강조한다.

네오마르크시즘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 각국에 다수의 마르크스주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시에 봉기해서 공산혁명을 일으키지 못했었는가?”라는 자성에서 시작되었다. 1930년대 이탈리아의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안토니오 그람시는 그 원인을 ‘문화주도권(cultural hegemony)’에서 찾았다. 지배층인 귀족이나 자본가들의 문화, 즉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중심 가치로 두는 기독교 문화가 사회 전반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뜨리고 혁명을 일으키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람시는 10년 이상의 감옥 생활 동안 33권의 감옥노트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네오마르크시즘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프랑크푸르트학파는 1920년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발생한 문화비판이론의 대표적인 학파이다. 이들은 대중문화와 매체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분석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과 변화를 다루는데 중점을 뒀다. 그람시와 이 학파의 직접적인 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들은 그람시의 이론을 계승 및 확장해서 문화와 매체가 대중을 지배하

육과 보스턴 유수의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UC샌디에이고로 옮기면서 베트남 전쟁 반전운동에도 관여했다. 그의 글 ‘순수한 관용에 대한 비판(a critique of pure tolerance)’을 통해 모든 것에 대해 공정하게 관용해야 한다는 ‘순수한 관용’의 개념은 불충분할뿐더러 제도적 불평등과 억압이 특징인 사회에서 오히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종

것이다. 이는 기혼자의 혼외 성관계를 확장하고, 미혼자의 혼전 성관계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 결과는 가정의 파괴와 결혼 관계의 악화를 가져와 교회와 국가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해체하게 된다. 성적으로 타락한 가정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자녀들이 거리에 나가게 되고, 불안한 가정들이 재생산되면서 사회는 불안해지고 공산혁명의 기회가 온다는 것이 문화주도권 획득을 위한 그들의 처방이었다.

네오마르크시즘을 포용한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가 중요시하는 결혼을 가장 큰 악으로 간주하고, 성적 순결을 지키는 전통적인 성, 사랑, 결혼의 개념을 혐오한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생육문화명령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된 가정에 내린 최초의 명령이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거룩함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다.

성경적 결혼제도를 존중하고(중혼 금지, 동성혼 금지), 부부의 성적 순결을 지키며(간음 금지), 태아(낙태 금지)나 죽어가는 사람(안락사 금지)도 귀한 생명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좌우할 수 없다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생명-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람이
좌우할 수 없다는 가치를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생명-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 권력을 유지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초기의 이 학파는 독일의 호크하이머(Max Horkheimer)와 아도르노(Theodor Adorno)가 주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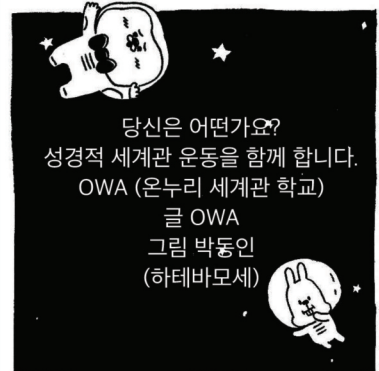
1930년대 나치 정권 등장으로 프랑크푸르트대학의 교수로서 이 학파를 주도하던 마르크제(Herbert Marcuse)가 1940년 미국에 이민해서 프랑크푸르트학파가 미국에서 뿌리내리고 발전했다. 마르크제는 뉴

차별, 성 차별 또는 억압을 조장하는 관점들은 관용 받을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며 약자에 대한 관용의 개념을 확립했다. 그리고 네오마르크시즘의 아버지라 불렸다.

네오마르크시즘이 기독교에 끼친 가장 나쁜 영향은 ‘성-생명-결혼-가정’으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를 해체하려는 시도 때문이다. 그람시가 그의 감옥노트에서 제시한 문화주도권 획득의 방법은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장하는

카툰으로 배우는 ‘기독교 세계관’

OWA툰 no.3 (based on 22년 송구영신예배 설교)



“그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

동성 부모 입양 VS 아동의 인권



김진국 집사
(한강동체, 고려대
인문예술과정 주임교수)

프란치스코 교황이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동성애는 범죄(crime)가 아니다. 그래, 하지만 그것은 죄(sin)다. 좋아, 먼저 죄(sin)와 범죄(crime)를 구별하자. 서로 사랑하

지 않는 것도 죄(sin)다.”

교황청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3억 6,000만 명이다. 14억 가톨릭 신자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에 엄청난 고뇌가 숨겨져 있다. 사실 기독교 시각에서 볼 때 동성애는 ‘신의 질서’를 침해하는 명백한 죄악에 해당한다. 하지만 교황은 동성애를 범죄화하는 법이 부당하다고 비판한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동성애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와 동성애를 수용해야 한다는 동성애 찬성론자의 강경하고 현실적인 요구와 흐름 속에서 사실은 “너도 옳고, 너도 옳다”는 황희 정승식의 양시양비론(兩是兩非論)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성애자들을 환영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들을 소외시키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우리 각자가 우리의 존엄성을 위해 싸우는 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같은 발언은 “가톨릭 교회가 동성애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또 노력해야 한다”는 그의 또 다른 발언과 언뜻 상충된다. 이 역시 프란치스코 교황의 현실적인 고심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교황의 발언에는 동성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말고 포용하자는 현실적 요구와 동성애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당위론적 요청이 함께 담겨 있다.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를 막론하고 성서적 입장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명백하다. 동성애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하고 축복한 신의 질서와 신의 창조 섭리를 위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신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성서를 연구하는 인류학자들의 생각이 조금 색다르다. 행동생물학자이자 생물인류학자 카렐 판스하이크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예를 들어 구약성서에서 동성애와 수간(獸姦)을 금지하는 법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법의 제정에 질병 예방은 분명 근본적인 역할을 했다.”



“동성 부모 가정에 선택권도 없이 입양되는 것은 인권침해이자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정체성 혼란 문제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 대물림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판스하이크 교수에 따르면 성서에서 동성애, 근친상간 등을 금지한 이면에는 의학적인 이유가 있다. 당시 수준으로는 과학적인 원인은 몰랐지만, 분명히 이런 행위가 감염성 질환 혹은 유전적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성서 기록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근대 이전은 물론이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왜 동성애에 대해 반대하고, 심지어 차별하고 혐오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인류학적인 시각에서 설명해 준다. 교황의 말처럼 동성애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에 대한 인간적인 차별과 혐오를 용인해서는 안 될 일이다. 동성애 용인 문제와 인간적 차별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임상심리전문가인 한 대학 후배 A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나와 토론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심리상담을 하다 보면 동성애자들을 많이 만나. 그런데 그들이 너무 힘들어해. 왜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운명이 너무 가혹하다고 하는 이들도 많아.”

정신과 전문의인 후배 B 역시 자신의 고교 친구 중 한 명이 성정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의 친구로서나 의사로서 우울증이나 불안 증세를 경감시켜주는 것 외에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주지 못해 답답하다고 고백한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동성 부모(same-sex parents)가 아동을 입양할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다.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정체성장애

가 직접적인 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와 성정체성장애에 대해 길게 논하는 이유가 있다. 아직 한국은 동성 간 혼인이 합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상당수 국가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 문제가 언젠가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이 틀림없다.

동성 부모가 양육한 자녀, 양성 부모가 양육한 자녀

외국의 경우 동성 결혼 및 동성 부모의 아동 입양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다.

“동성 부모가 양육한 자녀나 양성 부모가 양육한 자녀의 성과에 큰 차이가 없다.”

이들의 결론은 언제나 이렇게 귀결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틀렸다고 몰아세우지 말라.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과연 그럴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한 연구에 따르면, 통상적인 이성 부모의 자녀에 비해서 동성 부모의 자녀가 정서적인 문제를 겪을 확률이 4.2배 높다. 청소년기의 자살 충동은 이성 부모(13.6%) 자녀에 비해 동성 부모(43.5%)의 자녀가 세 배 이상 높았다. 청소년기 부모로부터 거리감도 이성 부모(35.8%)의 자녀에 비해 동성 부모(93.2%)의 자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청소년기 비만도 이성 부모(13.8%)의 자녀에 비해 동성 부모

(30.85%) 자녀가 두 배 이상 높았다.

정량적 데이터보다 동성 부모 가정에서 자란 아동들의 수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과연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더욱 실감한다. 동성 부모에게서 자란 두 명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자.

“내 인생의 고통은 내 ‘두 엄마’의 관계를 나라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를 간절히 바라는 혼란 상태에서 나왔다. 엄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부재중인 아버지 또한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아프다. 나는 결코 갖지 못할 것을 알지만, 그 아버지를 갈구한다.”

“내 인생에는 여성이 없었다. 다섯 살 아이의 머리로는 내게 왜 엄마가 없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갑자기 엄마를 절실하게 원하게 됐다. 나는 상실감을 느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구멍을 고모들, 아빠들의 레즈비언 친구들, 선생님들로 메꾸려 애썼다. 나는 두 동성애자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명의 엄마의 사랑을 갈구했다.”

책 <아이들은 정말 괜찮을까?>의 저자 케이티 파우스트에 따르면, 많은 학자가 자녀가 성숙하는 데 필요한 사회적, 정서적 필수 3대 영양소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안정감’을 꼽는다고 한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동성애자들이 비록 범죄(crime)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비록 도덕적인 죄(sin)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품어안지 차별과 혐오로 내칠 수는 없다. 그들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논리로 동성애와 동성 부모의 아이 입양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아이는 정체성 혼란을 겪지 않는 부모 밑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심리적 안정감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을 골고루 듬뿍 받을 권리가 있다. 입양 아동 입장에서 볼 때 아빠도 남자, 엄마도 남자 혹은 아빠도 여자, 엄마도 여자인 가정에 선택권도 없이 입양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심각한 폭력이 아닐 수 없다. 자신도 해결하지 못한 정체성 혼란 문제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 대물림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아동 인권이 최우선이다.

앞으로 벌어질 우리의 논쟁은 부박하고 피상적이어서는 안 된다. 진중하고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탄없는 논쟁이 합리적 정책으로 이어지는 상생의 논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sin)가 아닌가.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나는 어떤 유형의 엄마인가?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다. 건강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키를 엄마에게서 찾을 수 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엄마는 어떤 모습일까? 다섯 가지 엄마 유형이 있다.

첫째, ‘권력형 엄마’다. 이 유형의 엄마는 자녀의 삶을 자신이 계획해줘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훈계하고, 지도하고, 평가한다. 자녀를 엄마의 울타리 안에 꼭꼭 가둬 엄마만 의지하게 만

든다. 권력형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이는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울 수 없다. 무슨 행동이든 엄마에게 잘잘못을 평가받기에 자신감도 없고,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한다. 이제부터라도 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찾도록 엄마가 뒤로 한 발짝 물러나야 한다.

둘째, ‘희생형 엄마’다. 희생형 엄마들 역시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 보통 권력형 엄마처럼 군림하는 데 실패한 경우 희생형으로 전환한다. 이 유형의 엄마들은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아이에게 매달린다. 그러면서 심한 허전함에 시달린다. 또 은연중에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하고 있어”라는 메시지를 준다. 자녀가 죄책감과 부담감에 시달리게 만든다. 그래서 자녀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과도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 유형 엄마들은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언젠가 자녀는 부모 품을 떠난다. 떠나보냄을 준비하는 것 역시 엄마 몫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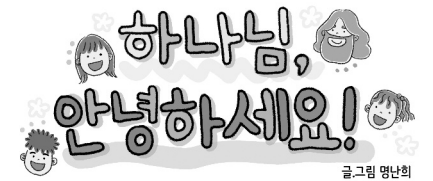
셋째 ‘자기도취형 엄마’다. 자기도취형 엄마들은 보통 지나친 완벽주의자다.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우아한 엄마

다. 외부의 시선에 너무 민감해서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못 참고 과민 반응을 보인다. 이 유형 엄마들은 스스로 성취욕이 강해서 아이들의 작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끊임없이 무가치하다는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늘 행동과 결과로 평가 받는다. 그래서 주눅 들고 급기야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다. 엄마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거나 성공한 경우,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압박감에 시달리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

넷째, ‘애정결핍형 엄마’다. 애정결핍형 엄마는 지나치게 성취욕이 강한 타입이다. 아이를 걸림돌로 여긴다. 집안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탓에 부모에게 혹은 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온 엄마들이 많다. 엄마가 되면서도 온통 자기 몸을 치장하거나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이들에게 아이는 무거운 짐이요, 떼내고 싶은 흑이다. 이 유형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들 마음에는 엄마의 자리가 점점 없어진다. 아이는 안전하고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못한 탓에 감정이 메마르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 공격적인 성향을 갖기 쉽다.

다섯째, ‘온유하고 안정된 엄마’다. 좋은 엄마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자녀의 마음을 잘 읽어준다. 특히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고 반응하며 지지해준다. 권위와 사랑을 균형 있게 사용해서 일관성 있게 아이를 대한다. 좋은 엄마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발전하도록 돕는다. 무엇보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엄마인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이를 타하기 전에 먼저 양육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란다. 엄마의 작은 변화가 부모-자녀, 부부, 가정문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46. 스승의 은혜



대전온누리교회 키즈바이블 아웃리치 후기

“선교를 직접 느끼고 배웠어요!”

키즈바이블 아웃리치가 저의 첫 번째 아웃리치였어요. 아웃리치와 선교를 처음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무척 설렘했어요. 교회 밖에서 활동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선교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신 내용을 배우고, 선교사 묘비에 꽃을 올려두면서 선교를 직접 느낄 수 있었

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샤프 선교사님이에요. 샤프 선교사님에게 아이가 네 명이나 있었는데 모두 일찍 죽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분은 흔들리지 않고 선교하신 모습을 본받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가족을 맡기는 샤프 선교사님의 모습에 감동했거든요.

공주제일교회 기독교박물관을 방문했을 때도 좋았어요.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 이야기를 듣고, 121년 된 오르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 오르간은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져오셨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 김예준(대전 초등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키즈바이블 아웃리치를 참가했어요.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 찍는 게 정말 좋았어요. 키즈바이블 아웃리치에서 옛날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을 본받고 싶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공주에서 선교지를 돌아다니 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신났어요. 비가 와서 선생님께서 우비를 챙겨주셨는데 따뜻해서 감사했어요. 나중에는 더워서 땀이 났어요. 아직 키즈바이블을 못해 본 친구들에게 키

즈바이블을 꼭 추천하고 싶어요. 아웃리치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도 깊이 알게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친구들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 원호영 학생(대전 소년부)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싶어요!”

교회 친구들과 함께 가는 첫 아웃리치라 설렘했어요. 공주에 처음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탐방이 가장 좋았어요.

이번 아웃리치에서 유관순 열사님의 이야기를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유관순 열사님이 샤프 선교사님의 제자였다는 게 신기했어요.

샤프 선교사님과 엘리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아웃리치에서 정말 많은 것을 보았는데 유관순 열사님과 여러 선교사님의 무덤, 동상을 본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외로움과 질병을 참아가며 복음을 전하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

동했어요. 정말 감사했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졌어요. 선교사님들의 신앙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아웃리치에 다른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 차로아 학생(대전 꿈방1부)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좋아요〉

5월 25일 본문 '삼하 2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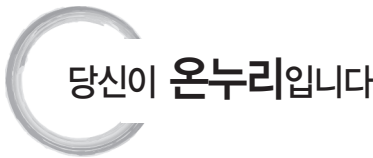


1. 다윗은 수많은 전쟁에서 자신을 돌보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했나요? 아래 보기에서 찾아보세요.

바위 / 산성 / 방패 / 노래 / 피난처 / 구원자 / 우주 / 밧 / 힘 / 사랑 / 구원의 불

2.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멋진 표현으로 소개해주세요.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동화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

홍경미 작가의 신앙 그리고 고백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와!”라는 탄성이 나왔다. 나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도 닦았다. 잊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홍경미 작가(분당A공동체)와 인터뷰하려고 별생각 없이 읽기 시작한 동화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 동화에서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홍경미 작가가 쓴 동화의 힘이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든다. 동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홍경미 작가를 만났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으뜸포도마을은 한 집 건너 포도 농사를 지을 정도로 포도가 유명하다. 마을이 시작되는 길목에 키가 크고,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는 왕포도나무가 있다. 그 왕포도나무에 탐스러운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그리고 왕포도나무의 포도가 잘 자라도록 따뜻한 햇볕과 포근한 바람, 촉촉한 비를 선물하는 ‘아버지’가 있다. 포도송이들은 그 아버지의 보호 아래 왕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 궁금했던 포도 두 송이가 집을 나갔다. 왕포도나무 가지에만 매달려 있기 지루하고, 아버지 보호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길을 나섰다.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포도송이들은 가지에서 떨어져 나오자마자 온 몸에 상처가 나고 죽을 뻔한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 물을 마시지 못해 온 몸은 주글주글해졌다. 그제야 아버지가 있는 으뜸포도마을로 돌아가고 싶어졌다. 하지만 너무 멀리 떠나왔다. 과연 포도송이들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이 이야기가 홍경미 작가(분당A공동체)의 동화 <집 나간 포도>의 줄거리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이야기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율처럼 느껴진다.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난 초신자,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은 성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하나님 품으로 초대한다.

녹음실에서 만난 ‘나의 하나님’

홍경미 작가의 동화를 덮으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이토록 잘 전하는 방법이 또 있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작가의 신앙이 궁금했다. 당연히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한 내공이 단단한 성도라 여겼다. 그 예상이 보기 좋게 빗나갔다. 홍경미 작가는 하나님을 만난 지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다. 40여 년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다.

“어릴 적 우리 집에는 부적이 한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일 년에 두 번 무당이 와서 굿을 했고요. 엄마는 옆집 문에 교회 문패가 붙어 있었

면 “예수쟁이 왔다”고 욕하실 정도로 기독교를 싫어하셨습니다. 주변의 몇몇 말과 행동이 다른 일부 크리스천들을 보면서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일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여 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홍경미 작가는 알아주는 워커홀릭(workaholic; 일중독자)이었다. 야근이 취미이고 주말에도 회사 책상에 앉아 있어야 마음이 편했다. 20여 년간 그렇게 땅만 보며 살았다. 원하던 대로 목표도 이뤘다. 국내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광고대행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인정받았고, 부하 직원들도 잘 따랐다. 마냥 순탄하게 달리던 홍경미 작가의 삶에 예상하지 못한 제동이 걸렸다. 직장 상사와 갈등으로 회사생활이 힘들어졌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괴롭힘을 계속 당했다. 공황(恐慌; 두려움이나 공포로 갑자기 생기는 심리적 불안)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복도에서 그 상사를 마주치면 숨이 막혔다. 회사에 갈 생각만 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물속으로 가리앉는 것만 같았다. 꾸역꾸역 몇 개월 버텼다. 버티고 버티다 ‘이러다가는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홍경미 작가만 보면 전도하려고 눈에 불을 켜던 거대업체 녹음실 사장님이 말씀 모임에 초대했다.

“제 사정을 잘 알던 녹음실 사장님이 매주 목요일에 모임이 있으니까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가게 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직장인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괜히 왔다 싶고, 녹음실 사장님께 화도 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설교를 듣는데 모두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한 번만 더 가보자’는 마음으로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찾아갔다가 매주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녹음실에서 홍경미 작가는 하나님을 만났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유 없이 저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던 중에 저도 똑같이 이유 없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동화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홍경미 작가(분당A공동체).

제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 귀가 열렸고 듣기 싫었던 상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상사와의 관계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동화로 전하는 ‘참 좋은 하나님’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아무도 나에게 소개하지 않았지?”

홍경미 작가가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든 생각이다. 홍경미 작가는 그 좋은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야근을 하고 새벽에 퇴근해도 꼭 성경 3장씩 읽고 기도를 드렸다. 출근하면 지난밤에 읽은 하나님을 팀원들에게 전했다. 팀원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며 놀라워했다.

“제가 하루아침에 달라지니까 팀원들이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이야기 밖에 안 하니까 저를 말릴 정도였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팀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식사기도를 해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사주는 밥이니까 어떻게 거절하겠어요?(웃음) 이후 매일 새벽에 일어나 팀원들의 도시락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성을 보여야 순순히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줄거라 생각했거든요(웃음) 그만큼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온종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던 바로 그때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 집필을 시작했다. 목자를 사랑하지 않는 양 한 마리도 귀히 여기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는 목자 하나님의 사랑을 동화에 담았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어머니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호를 도맡았다.

“엄마가 뇌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엄마를 만나주시려고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1~2년 누워계실 줄 알았는데 9년 가까이 병원에 계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계속되는 아픔과 고난의 상황을 이해하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엄마를 만나주셨습니다.”

홍경미 성도는 글을 읽지 못하는 어머니를 위해 성경을 녹음해서 들려드렸다. 요양병원에서 드리는 예배에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고 참석했다. 하나님을 강하게 거부했던 어머니는 계속되는 고난 속에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없을 때는 매일 전화해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을 읽어드렸다. 그때 이미 어머니는 꺼져가는 촛불 같았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랐다.

“엄마가 소천하시기 전에 어떻게든 영생의 소망을 전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음식을 못 넘기시던 어머니께서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의 후렴구인 ‘기쁘고 기쁘도다’를 부르셨어요. 그때 함께 부르며 어머니께서 영원한 분향, 천국의 삶을 믿기 시작했다는 믿음이 들어 엄청 울었습니다.”

어머니를 간호하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동화 <집 나간 포도>에 담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사랑을 동화에 녹여냈다. 고난이라 생각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글과 그림으로 따뜻하게 풀어냈다.

“제가 쓴 동화를 읽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만나고, 사랑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말씀 해설

“...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출 20:5~6)

이 말씀은 성도들이 크게 혼란스러워하는 대표적인 구절이다. 성경의 다른 구절들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신 24:16).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됨이냐”(겔 18:2).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배웠는데, 위의 본문을 보면 정반대로 말하고 있다. 내 믿음과 상관없이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의 후손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믿지 않으면 그의 자녀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 현재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이유가 전부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 만들기에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 말씀에는 올바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이 난해한 구절은 과연 어떤 취지

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 정말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부모가 신앙이 없어서 저주를 받고, 한평생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맥락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은 구약의 십계명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십계명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위의 말씀은 하나님 은혜의 구원을 토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적 삶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본문은 부모가 죄를 지었는데 자녀가 3~4대에 걸쳐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 이 말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인과응보식 처벌이나 혈통적 가계에 저주가 임한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된다. 고대 가정의 문화적 맥락에서 볼 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존재는 그 영향력이 대단했다. 한 가정의 영적인 대표로서 3~4대, 친인척까지 엄청난 파급력을 미치는 대표성 있는 존재였다. 그래서 만일 가장이 큰 실수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잘못된 일에 가담하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나머지 가족과 식솔들이 엄청난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 자녀들에게 저주가 유전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비와 사랑을 천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 문자적 해석보다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이를 정도로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엄청난 사랑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악의적인 죄를 계속 짓는데도 부모님의 선한 행위 때문에 벌을 면제받거나 구원받는 것처럼 곱해해서 이해하면 결코 안 된다. 혹자는 이러한 난해성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식으로 설교하는데, 이는 매우 반성경적이고 올바른 복음의 해석이 아니기에 주의해야 한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류의 모든 죄가 대속되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선포한다. 믿음으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더는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약속하고 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다윗 가문 이야기다. 이 말씀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맞는다면 다윗은 즉각적으로 심판받아야 했다. 후손들 모두가 심판 대상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죄에 대한 징계, 복음에 합당한 삶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8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하고 바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무엇 때문인지 임신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3년이 지났는데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난임병원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치료와 임신 시도가 몸과 마음을 지치게 할 뿐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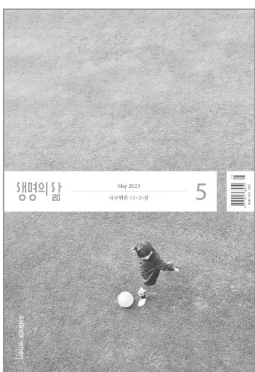
난임병원에 다닌 지 3년 되었을 때 ‘이제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모든 치료와 시술을 중단하고 1년 정도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미 건조했던 남편과의 관계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의 마음 한편에 아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예쁘고, 교회에 아이들 손을 잡고 오는 부모들이 얼마나 부럽던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귀한 새 생명을 허락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치거나 서로를 탓하지 않게 기도해주시고, 저희 부부가 더 가까워지고, 부모로서 준비되는 시간을 보내도록 기도해주시고.

/ 익명의 성도

기도제목 보내는 곳: hha0@onnuri.org

5월 29일~6월 4일
〈사무엘하〉 3:13~24:25,
〈디도서〉 1:1~3:15, 〈예레미야애가〉 1:1~11



징계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다. 다윗의 모습을 보며 나는 고난과 징계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묵상하자.

▶ 이스라엘은 다윗 한 사람의 나라가 아니다. 충성된 동역자들의 피땀으로 세워진 나라이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해 인구 조사를 강행한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받을 징벌을 다윗에게 선택하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신다. 7만 명이 죽어 가는 참혹한 현장에서 다윗은 불신앙적 선택을 깊이 회개하고 백성을 위해 간구한다. 다윗은 값을 치르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이후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다. 하나

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신다.

묵상포인트 2: 세속주의의 도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시대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고 거짓 교훈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기초한 가치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 성도는 선한 행실로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임을 세상에 보여줘야 한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도가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하자.

▶ 바울은 그레데교회 사역자인 디도에게 각 성에 지도자(장로, 감독)들을 세우라고 지시한다. 바른 교훈으로 성도를 가르쳐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바울은 다양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경건의 본이 되며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았다. 성도가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묵상포인트 3: 죄는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과 영광을 빼앗아 가고 결국 삶 전체를 파괴한다. 오랫동안 지속한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결국 두려운 심판을 행하신다. 파멸된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 부르짖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대변한다. 택하신 백성이라

도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동족의 패망으로 인해 애통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묵상하자.

▶ 예레미야는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애통한다.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모든 민족에게 조롱거리가 된 이유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고 우상을 숭배한 죄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동맹국에 배신을 당하고 대적에게 모든 보물을 빼앗겼다. 성소는 더러워졌으며 유다 백성은 굶주리고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는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로 유다는 패망하고 영광을 잃어버렸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 다윗은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지해 인구 조사를 강행하고 큰 고통을 겪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적 선택을 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자. 그 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 바울은 다양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른 교훈을 따라 살아갈 것을 권면한다. 나에게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서 어떤 선한 행실로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할지 살펴보고 실천하자. ▶ 두려운 징계를 하나님이 당장 내리시지 않는다고 죄를 용납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내게 없는지 살피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피하라는 말씀(살전 5:22)에 전적으로 순종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결혼은 결단이자 헌신!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상대방이 결혼하고 싶어합니다.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배우자인지, 내가 한 사람과 평생 잘 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으로 결혼해야 할까요?”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 단골 메뉴처럼 이야기하는 주제가 ‘결혼’이다. 결혼을 주제로 나 또한 질문을 받곤 한다. “목사님은 언제 결혼에 대한 확신이 들었나요?”라는 질문이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언제나 알 수 없는 상황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마주하며 살고, 근본적으로는 죽음이라는 불안을 떨쳐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결혼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결혼을 확신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결혼 이후 부부 관계를 결혼 전에 먼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애 관계에서 아무리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길고 깊어도 연애 관

계는 어디까지나 연애 관계일 뿐이다. 데이트하고 나면 각자 집으로 가야 하고, 나의 민낯을 확인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결혼해서 한 집에 산다는 전제로 알게 되는 서로에 대한 모습이 남아 있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이러한 이유로 ‘살아보고 결혼을 결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하지만 단순히 한집에 함께 살고, 생활을 공유한다고 해서 결혼 생활을 먼저

“결혼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자 헌신이다.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경험하거나 배울 수는 없다. 결혼은 언약의 관계이고, 동거가 아닌 결혼이라야 주어지는 약속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 결혼을 확신하려고 할 때 대체로 나에 대한 확신보다 상대에 대한 확신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청년들의 결혼과 만남을 주제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저 사람이 나의 평생의 배우자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다. 그때마다 나는 주저없이 “확신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한다. 평생의 시간이 주어져도 확신할 수 없다. 결혼을 통해 삶을 나누고, 한 몸이 될 때 진짜 서로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결혼은 상대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상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확신으로 하는 것이다.

결혼하고 나서 상대에 대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모습이나 성격을 보게 되었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대의 삶의 패턴들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다름과 차이가 아니라 사랑의 이유로 고백할 수 있는 확신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면 그때가 바로 결혼할 때다.

〈창세기〉가 전하는 아담이 가정을 이루는 과정을 생각해 보자. 그가 가정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영적으로 준비시키셨다. 그가

벤엘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게 먼저였다. 거짓으로 점철된 삶을 살던 인생, 철저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헌신하는 인생으로 바뀐 이후에 배우자를 만났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혼은 확신이 아니라 결단이자 헌신이다. 우리 삶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시시각각 변하는 내 마음조차 예측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는데, 평생 함께할 누군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결단과 헌신을 다



정한호 목사
(W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가정의 리더십

살면서 리더십에 관한 생각을 필연적으로 한다. 긍정적인 리더십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잠재된 능력의 최대치를 자발적으로 끌어올리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리더십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이 사장되게 한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에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리더십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부모가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행복한 가정으로 인식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가 발휘하는 리더십이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부정적이라면 행복과 만족을 찾기 어려워할 것이다. 가능하면 속히 그 가족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에서만 리더십에 대해 고민할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의 리더십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통해서 발전된 모습으로 가정을 섬겨야 한다.

일반적으로 좋은 리더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리더의 자질은 단연 소통을 잘하는 것이다. 팀원들은 소통 잘하는 리더를 가장 선호한다. 소통을 잘하면서 팀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은 인정과 격려를 적절하게 잘하는 리더, 잘 들어주는 리더, 섬기는 리더, 팀원들과

함께 일을 만들어 가는 리더 등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도 긍정적 리더십의 자질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결혼 생활, 배우자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리더십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도움이 된다. 소통을 잘하고 있는 부모인지, 소통 잘하는 남편과 아내인지 돌아보면서 긍정적인 리더의 모습으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평가해보자. 적절한 인정과 격려를 통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잘 들어주고, 섬기는 리더, 가족들과 함께 목표하는 일을 하는지를 평가해보자. 가정에서 어떤 리더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평가해 볼 수 있다.

부정적인 리더십의 모습도 있다. 부정적인 리더십은 당연히 함께 일하는 게 괴로울 수밖에 없다. 리더가 강요한 틀 안에서만 숨죽여 따라야 하는 분위기가 되기 쉽다. 일과 목표만 남고 사람은 남지 않은 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일반적으로 손에 꼽는 부정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은 역시 소통 영역이다. 소통이 안 되는 리더를 사람들은 가장 부정적인 리더라고 인식한다. 팀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자신의 말만 하는 리더, 서로 의견을 교환하는 게 불가능한 리더, 말을 했지만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리더 등 소통이 안 되는 리더십은 함

께하는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한다. 말이 안 통하는 리더와 함께 일하는 것은 고통 그 자체일 가능성이 크다. 가정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의 리더십 가운데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은 매우 힘들 수밖에 없다.

불통의 리더십과 함께 따라오는 부정적인 리더십의 특징은 말과 행동이 다른 리더, 말로만 지시하는 리더, 작은 것도 사사건건 간섭하는 리더 등이다.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부모가 행동하는 모습대로 따라 한다. 어떻게 보면 말보다 부모의 모범적인 행동이 훨씬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 발휘 방식이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모방하면서 학습하는 대상은 부모다. 성장하면서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함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볼 것이다. 그 말과 행동을 마음에 담아 둘 것이다. 리더가 말과 행동이 달랐을 때 리더의 권위가 급격히 흔들리게 된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가정에서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도록 스스로 돌아보면서 리더십을 발전시켜나가는 게 필요하다. 또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고 습관처럼 잔소리와 걱정을 쏟아 내면서 하나하나 간섭하는 부모라면 이 또한 부정적인 리더의 모습이다. 자녀들이 때와 상황에 따라서 스스로 헤쳐나가며 실패와 성취감을 경험하도록 지켜봐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긍정적인 부모

의 리더십이다.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소통은 부모의 리더십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일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가정에서 자녀 그리고 배우자와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심사,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표현하는 것에 주의 깊은 관찰과 그에 따른 적절한 반응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룡에 큰 관심이 있는 아이라면 어려운 공룡의 이름을 줄줄 외울 것이다. 이 아이의 주 관심은 공룡이다. 이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공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룡이 좋은 대화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물론 아이들의 관심은 자라면서 계속 변하는데 그때마다 주의 깊게 관찰하며 소통하는 부모 리더십을 만들어야 한다. 가족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리더십을 습득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지, 아니면 함께하고 싶지 않은 부정적 리더십을 무례하게 휘두르고 있는지 돌아보자(막 9:37).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 유적지’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과 ‘수원동신교회’



임찬웅 집사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세계문화유산 ‘수원 화성’ (華城)은 적을 방어하는 군사시설이지만 설치 미술품처럼 아름답다. 특히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이 어우러진 구간이 화성에서 가장 아름답다.

다. 광교산에서 발원한 유천(수원천)은 화성을 가로질러 흐른다. 유천이 화성 내부로 유입되는 곳에 수문(水門)인 화홍문(華虹門)을 설치했는데, 그 이름처럼 무지개가 뜨는 문이다. 무지개 모양으로 된 수문 일곱 개를 연결해서 그 위에 성벽을 쌓았다. 유입된 물이 성벽을 통과해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층층이 떨어지게 했다. 물이 떨어지면서 흩어지는데 그때 무지개를 만들어낸다. 정조 임금이 이곳에 왔을 때 버드나무 가지가 늘어져 냇물에 닿았다고 해서 유천(柳川)이다.

화홍문 안쪽 유천변에 오래된 교회 하나가 있다. 그 교회는 크림색으로 칠해졌고, 전면에 ‘수원동신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다. 교회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가슴 평한 사연을 품고 있다.

수원동신교회는 1897년 일본인 최초 해외



조선을 사랑한 일본인 노리마츠 선교사가 세운 ‘수원동신교회’.

선교사 노리마츠 목사에게 세워졌다. 하급무사 집안에서 태어난 노리마츠는 지방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리고 메이지대학 신학부에 진학해 목사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박영호를 만났다. 박영호는 갑신정변 실패 이후 일본에 망명 중이었다. 박영호에게 조선의 상황을 들은 노리마츠가 조선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했다. 훗날 노리마츠가 선교지로 수원을 선택한 것은 아마 박영호의 고향이 수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영호를 통해서 수원에 대해 들었을 것이고, 수원이 그에게 매우 친근한 장소였을 것이다.

1895년 명성황후가 일인들에 의해 시해당

하는 을미사변이 터졌다. 노리마츠는 일본인으로서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꼈다.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 속죄하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조선으로 건너갈 결심을 했다. 그는 1897년 12월 11일 고베항을 떠나 12월 27일 제물포항에 도착했다. 그때부터 조선 선교를 시작했다.

노리마츠 목사는 1899년 사토 여사와 결혼했다. 그리고 1900년 수원으로 이주했다. 그는 수원에 정착한 최초의 일본인이다. 노리마츠 목사가 일본으로 돌아간 1914년까지 철저히 한국인으로 살았다. 의식주 모두 한국인과 동일하게 살았다.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지도 않았다. 노리마츠 목사가 수

원천변에 교회를 세웠는데 당시 그 주변은 주택이 거의 없는 한적한 장소였다. 방화수류정과 성벽이 멀리 있고, 교회 뒤로는 오래된 소나무가 둘러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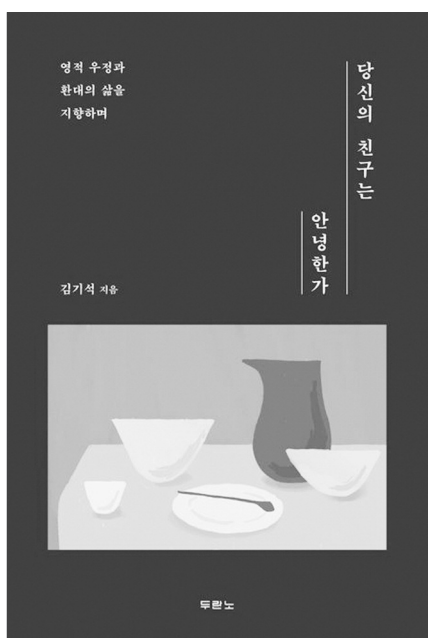
노리마츠 목사는 일본이 한국인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을 반대했다. 한국인이 겪고 있는 아픔을 보듬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조선인 편에 선 탓에 생활이 몹시 궁핍했다. 부인 사토 여사가 머리카락을 잘라 쌀을 마련했고, 그 쌀로 교인들을 먹였다고 한다. 극심한 가난에 시달린 끝에 사토 여사가 1907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의 유해는 동신교회 언덕에 안장했다.

노리마츠 목사는 1914년까지 수원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1919년 3.1만세운동을 폭력으로 진압한 조선총독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도 1921년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사토 여사 곁에 묻어달라는 유언대로 그의 유해는 수원동신교회에 안장했다.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수원천변 버드나무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한들 노리마츠 목사가 베풀고 행한 하나님 사랑과 긍휼만큼 아름다울까? 일본이라면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노리마츠 목사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두 나라가 진정으로 이웃이 되려면 노리마츠 목사가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묘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두란노 신간

영적 현대의 삶!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
김기석 저 | 두란노 | 13,000원

“욕망을 넘어 우정과 현대로 나아가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안부와 다정함의 인사를 건넵시다.”

김기석 목사의 신작 <당신의 친구는 안녕한가>에 적힌 메시지다. 저자는 현대를 “모든 주체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설명한다. 또 저자는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로 맞아들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자 정의”라면서 “탐욕에 이끌리던 삶을 나눔과 절제의 삶으로 전환하고, 고립의 세상에서 연대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에는 저자가 2021년부터 발표한 칼럼들을 선별해서 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벌어진 다양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 너머의 깊은 이야기들을 담았다. 이득을 재고 관계를 맺는 시대적 현상에 대해 성경적 기준으로 질문도 던진다. 크리스천들이 왜 시대의 흐름을 생각해야 하는지, 왜 타인과 약자를 위해 자신의 삶을 개방해야 하는지 등을 복음과 역사, 교양에 근거해서 설명한다. 저자는 영적 현대와 우정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살아야 할 삶이자 소명이라고 권면한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고통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고립감, 버림받음에 대한 의식, 무의미성이다. 하지만 우리 삶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때 삶이 견딜 만해진다. 울음을 전유하려는 욕망의 연결을 끊는다.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서 우정과 현대의 장소를 만드는 이들이 세상의 숨구멍이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작은 산 너머에 큰 산이 있음을 알아차린다.”

“무정한 마음이 공감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때 세상은 냉혹하게 변한다. 타자에 대한 적대감이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세상을 고향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불안이 스멀스멀 우리 영혼을 잠식할 때 진정한 안식은 불가능해진다. 적대적 공간을 현대의 공간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소명이다.”

이 책을 읽고 적대감이 만연한 세상에서 누군가를 내 삶의 자리로 초대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영적 현대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다정하고 따뜻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온누리와 함께하는
나부터 탄소중립!음식물쓰레기
바르게 처리하기

1) 수분 줄이기

- 과일 껍질은 햇볕에 말리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 수분을 제거한다.
- 그 외 음식물은 꼭 짜서 물기를 없애거나 양파망 등을 활용해 물기를 뺀다.

2) 기름 제거하기

- 남은 기름이 다른 음식물과 섞이지 않도록 모아뒀다가 폐식용유 수거함에 버린다.
- 기름 머금은 음식물쓰레기는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기름을 제거한 다음 버린다.

3) 일반쓰레기와 분리하기(일반쓰레기로 처리해야 할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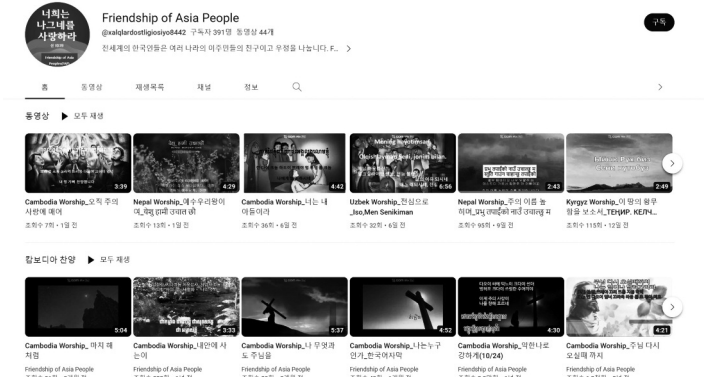
- 어패류와 갑각류 껍데기
- 소, 돼지, 닭의 뼈와 생선 가시
- 호두, 땅콩, 도토리 등 견과류 껍질
- 복숭아, 감, 살구 씨앗 등 딱딱한 과일 씨앗
- 계란, 메추리알 등의 껍데기
- 커피나 한약재 찌꺼기, 각종 차류 티백
- 콩, 양파, 마늘, 옥수수 등 섬유질이 많은 채소의 껍질

‘Friendship of Asia People’

화성M센터, 이주민 선교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 개설

화성M센터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 ‘Friendship of Asia People’ (이하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채널)을 개설했다. 매주 각 선교지 언어로 된 찬양 영상을 제작해 업로드하고 있다. 캄보디아, 우즈베크, 키르기스, 타지, 이란, 몽골, 네팔 언어로 된 찬양 40여 개를 업로드 했다.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은 외국인 사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경기 남양주와 경북 밀양의 시골교회에서 이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으로 캄보디아 예배를 드리고 있다. 최명현 선교사(화성M센터)는 “이



주민 선교를 위한 찬양 유튜브 채널이 거친 노동 생활로 인해 목마른 이주민들에게 시원한 물 한 모금과 같은 찬양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한다”면서 “이주민과 함

께 찬양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온라인 영상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민성기 선교사 소천

코로나19 후유증, 향년 60세



스리랑카와 캄보디아 선교에 헌신했던 민성기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가 지난 5월 21일(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소천했다. 향년 60세. 지난 5월 23일(화) 일산복음병원 장례식장에서 민성기 선교사 천국환송예배를 드렸다. 말씀은 박종길 목사가 ‘길, 진리, 생명’을 주제로 전했다. 박 목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선교에 헌신한 민성기 선교사님을 본받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나누는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故 민성기 선교사는 1999년 스리랑카 교회개척사역으로 선교를 시작했다. 2007년 캄보디아로 사역지를 이동해 교회 개척 및 제자 양육, 차세대 사역 등을 했다. 지난 2021년 9월 코로나19에 감염돼 에어앰블런스로 한국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다가 지난 5월 2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아내 최윤숙 선교사, 자녀 민시원, 민형선, 민주희가 있다. 장지는 캄보디아 르영교회다.

행복드림콘서트 세레식

5월 28일 오후 7시 서빙고 본당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세례 받고 천국 시민이 된다. 그 주인공은 지난 5월 8일(월) 열린 ‘행복드림콘서트’에서 결신한 부모 77명이다. 5월 28일(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에서 세례를 받는다. 지난 5월 24일 온라인(Zoom) 세례 교육을 완료했다.

국명정 자매(Point5 공동체)는 “그동안 교회 다니는 걸 강하게 반대하셨던 부모님이 세례를 받는 것 자체가 기적 같다”고 감격했고, 황재익 협동장로(서초B공동체)는 “누구보다 선하게 살았던 동생이 드디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5월 세례자

■서빙고 김선순 620303 김효영 780526 임미숙 671228 유아 강이안 220614 강영훈 이혜진 김은우 210528 김태현 성주영 김하랑 190509 김금식 고새봄 박요한 210110 박선근 권미정 신윤아 220606 신하영 김아진 장유이 220725 장지원 강민주 장재이 220725 장지일 강민주 조하은 220803 조경찬 김안나 천리안 190529 천세영 최재은	천리이 210219 천세영 최재은 한주원 170707 한명운 이은선 ■양재 강성화 800928 이영근 730104 최보광 860913 유아 박지호 211005 박성욱 조문영 박지후 220323 박준혁 김유영 박하은 230226 박조셉 이우나 송이선 210517 송주영 문혜민 송채우 201021 송제희 박미연 오아윤 200417 오석경 홍지은 오아인 200417	오석경 홍지은 유수호 210506 유지원 강노아 정라엘 220107 정재민 김진희 정준우 220211 정우성 유세진 조하린 210504 조영송 조혜연 진조안 211108 진영재 노가은 최시울 230627 최보광 김채린 최은찬 221209 최옥광 유주영 ■대학청년부 하늘 김지민 020923 이은송 040619 입교 김비손 040526 박상언 041031	이서진 041223 허브 정서영 980814 입교 이예은 971108 J4U 이윤주 980413 이주찬 910415 SNS 진상희 880225 정 현 900228 유아 신다은 220111 신성준 이혜린 임리안 210225 임한성 배수민 지소담 200916 지은찬 한예지
---	--	---	--

서빙고 만남의 잔치

일시: 5월 28일 오후 5시 /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

가정사역 강혜주 정겨운 정다운 정주영	백현순 조현신 관악금천 김미영 김지은 배지선 차지연	동작 김유진 나춘자 노기환 이성배 하혜용	서대문 김가희 김용옥 류미영 신효경	차혜민 신용산 김예슬 안유진 이정재	용산 변지명 이경순 이우석 정혜경 최연진	한강 김소윤 명원경 이광수 최진한
강서 권현아 김려원 김백광 이연호 이재현	김포 석우남 노원 서정환 오신애 임남수 정수옥	마포 김경희 김태훈 신아름 정태선 정태일 최대곤	성동광진 김도형 도레미 맹예은 박종민 원은지 이교하 이안나 전예스더 천상희	양천 박정화 박종태 조보경 최호중	이수 안효식 이촌 김시혜 조동현 한진수	S브릿지 권지유 김보연 김은혜B 노원준 신혜경 신희원 이채무 이하성 임연희 최영지 허진
고양은평 고민희 고재욱 김요한	동대문중앙 김태호 문경림	북누리 김기현 서기준 임혜정	성북 이은숙 이정웅 이철호	영등포구로 강은혜 구자현 김성목 김영민 노금정 송영근	일산파주 임은정 중종로 허효창	

새사람사역팀 동역자 모집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 2회 이상 성도

사회선교부 새사람사역팀에서 동역자를 모집한다. 일대일제자양육 동반자를 2회 이상 양육한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가 그 대상이다. 새사람사역팀은 매주 목요일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있다.

새사람사역팀에서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출소 후에도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도록 돕고 있다. 소망교도소, 서울구치소, 안양교도소 등에서 예배, 일대일제자양육, 멘토링, 큐티, 문서전도 등을 하고 있다. 문의: 02-3215-3434, 3436

재소자 간증

길 잃은 양이 주님께 돌아왔다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마당만 밟았다.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도 졸업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세상 것, 물질적인 것에 빠진 나는 도박중독이 되었다. 도박 빛이 늘어나면서 쉽고 빨리 돈을 벌기 위해 중국에서 나쁜 일을 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고, 하나님의 계획만 있다는 것을 소망교도소에서 깨닫고 있다.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리라 상상도 못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에서 나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있다. 온누리교회 양육자님들 덕분에이다. 지난해 온누리교회 사역자님들과 성경공부와 나눔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는 지금 온누리교회 사역자님들의 도움으로 신앙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 앞으로 불쌍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재소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섬기고 싶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 허민을 재소자(소망교도소)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참가자 모집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편’ 참가자를 모집한다. 1차 6월 2일(금)부터 8일(목)까지, 2차 7월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이어진다. 열린다성경 스터디 투어 ‘이스라엘편’은 매일 아침 1시간 30분씩 성경과 인문학을 공부하고, 이스라엘 현장을 답사하는 기독교 인문학 여행이다.

구약성경과 사복음서를 토대로 성경을 배우고 ‘중동전쟁사’, ‘초기의 로마 황제’, ‘헤롯왕조의 흥망’, ‘유대인의 자녀교육’ 등을 주제로 인문학을 공부한다. 류모세 목사(이스라엘 투데이 편집장, <열린다 성경> 저자)가 강의한다.

문의: 010-4902-1022

‘영화, 소통을 말하다’ 6월 24일 두란노서원 블레싱홀

영화를 보며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인물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는 ‘영화, 소통을 말하다’ 세미나가 6월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란노서원(용산구 서빙고로 65길 38) 블레싱홀에서 열린다. ‘영화, 소통을 말하다’ 세미나에서는 소희정 교수(마음과 공간 예술심리연구소 대표, 성공회대 외래교수)가 ‘내 인생의 영화’, ‘영화의 온도’, ‘마음의 온도’, ‘소통의 온도’를 주제로 강의한다. 회비는 7만 원, 6월 17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456

파워임팩트(POWER IMPACT) 참가자 모집

부모반 6월 3일, 청소년반 6월 10일 개강

청소년부모성장학교 ‘파워임팩트(POWER IMPACT)’ 부모반과 청소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모반 6월 3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충성홀(1주차 온라인), 청소년반 6월 10일부터 7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 도곡교육관 화평홀에서 진행된다. 청소년반에서는 8월 2일부터 8일까지 세부 미션랜드로 아웃리치를 갈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6월 10일까지 아이스쿨이나 회복사역 홈페이지(recovery.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그 부모이다. 회비는 1인당 10만 원(부부가 등록하면 15만 원, 청소년 추가 1인당 5만 원)이다.

문의: 02-793-9686

010-4548-1522

일본인 목회자가 보낸 편지



쿠사이 다쿠히로 목사
(오카야마 메구미그리스도교회, 오카야마그리스도재해지원실장)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오카야마현에서 목회하는 쿠사이 다쿠히로 목사(오카야마 메구미그리스도교회)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편지 드리는 이유는 감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8년 7월 서일본 지역 집중호우로 오카야마 지역주민들과 교회들이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오카야마 지역은 기후가 온난하고, 지진 등의 자연재해가 적은 지역이었기에 당시 집중호우 피해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오카야마현 선교모임(오카야마현내 교회 협력체)에서는 정부의 '집중재난경보' 발표 소식에 '오카야마 그리스도 재해지원실' (이하 재해지원실)을 만들고, 홍수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마비마을(오카야마현 구라시킴시 마비초)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사실 재해지원실을 열면서도 재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좋을지, 도움의 손길들은 어떻게 전달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외 많은 단체와 교회에서 도움의 손길과 기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와 도움을 준 이들이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망연자실한



지난 2018년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입은 아동관(오카야마현 구라시킴시 마비초 소재)을 온누리교회 긴급구호팀원들이 복구하고 있다.

우리에게 온누리교회는 누구보다 빨리 달려와 주셨고, 가장 최적의 긴급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심했던 아동관(지역아동센터) 피해작업복구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진흙투성이 된 그곳을 더위와 먼지를 뒤집어 써가며 씻어내고, 부서진 잔해들을 치웠습니다. 사실 아동관은 철거를 생각할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곳이 3년 뒤인 2021년 새로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 초기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이 전심전력으로 아동관을 청소하고 잔해를 치워준 덕분입니다. 현재 아동관에는 지역 아이들이 모여서 다양한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긴급지원을 종료하고, 중장기 지원으로 전환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했습니다. 우선 마비초 아리이마을에 '마비쿠라'를 세웠습니다. '마비 마을에 삶(쿠라시)의 따뜻함'이라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우리는 마비쿠라를 중심으로 '이바쇼즈쿠리(있을 곳 만들기) 지원', '어린이 지원', '가설주택지원' 사업 등을 2021년 3월까지 했습니다.

재해지원실에서는 3년여의 재해복구작업을 도와준 여러 기관과 단체, 교회와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피해복구 내용 보고하기 위

해 지난해 <오카야마그리스도재해지원실 활동기록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록집을 지난 5월 8~11일 있었던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 참석차 제주도에 갔을 때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님(동경온누리교회)께 보여드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의 헌신과 도움의 손길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의 존재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해외에서 봉사자들이 달려와 줬다는 것이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온누리교회 봉사자들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키리스토상' ('그리스도'의 일본어 '키리스토', '상'은 누군가를 부를 때 쓰는 호칭 '씨(氏)')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우리는 새로이 '마비쿠라 하우스'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비쿠라 하우스는 기존 '마비쿠라'가 했던 지역주민 지원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과 지원을 입은 사람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마비마을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마을에 교회가 생기면 가고 싶다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마비쿠라 하우스가 비록 교회는 아니지만, 상처 입은 주민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구원을 전하는 장소가 되도록 응원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진중세례식 참가자 간증



/ 박영진 성도(한강공동체)

초등학생 시절 여름수련회에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됐다. 하지만 나는 신앙적인 유목민 생활을 했다. 여러 교회 뒷자리에서 나만의 신앙적 만족과 유익을 구했다. 우연히 아내의 권유로 지난해 말 온누리교회에서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이수했다. 또 공동체, 다락방, 순예배의 의미조차 구분하지 못하던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순예배를 드렸다. 순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언젠가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다.

12사단 진중세례식에 참가했다. 나는 두 아들을 공군과 육군에 보낸 부모다. 그래서 장병들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안아주고 위로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자유롭던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지 2~3주 된 신병들의 뿔망뿔망한 눈망울, 조카 같은 수원들의 자녀에게 자기 모자를 씌워주며 미소를 보내는 청년들, 세례를 마치고 머리 위에서 흐르는 물을 닦아주고 포근히 안아주는 관사님의 사랑을 보면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을 새기듯 울먹이는 착한 장병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부모의 마음으로!

전날 행군을 해서 무척 힘들어하다가도 CCM '실로암', '멈출 수 없네'가 울려 퍼지자 200여 명의 장병이 목청껏 노래 부르고, 신나는 율동과 구호를 외쳤다. 그 모습을 보는 내내 손수건이 필요했다. 무한한 자유 속에 있다가 모든 게 통제되는 군대에서 가장 값지고, 찬란한 장병들을 위로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 장병들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진중세례를 통해서 알기를 소망한다.

목사님께 축복기도를 받으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장병들, 자유시간인 토요일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을 위해 군복을 차려입고 순서를 기다리며 어색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장병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새삼 느꼈다.

장병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영적 전쟁에서도 공동체의 선한 영향력과 기도로 승리하기를 바란다. 부모의 마음으로 장병들에게 많은 위로와 행복을 가득 전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뻐다. 장병들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한다. 장병들 모두가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기를 기도한다.

■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강동하 학생(인천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갔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 당연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에 가지 못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주일예배와 교회수련회, 두란노서점에 파는 500원짜리 젤리, 순예배 등을 누릴 수 없었다.

교회에 가지 못하면서 유튜브로 예배를 들었다. 예배를 직접 가지 않으니 주일에 항상 드리던 예배를 많이 빼먹었다. 예배도 안드리고 멍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는 확신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지는 않았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친구들과 관계가 멀어져서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학원도 그만뒀다. 공부가 재미없어졌다. 무료하게 집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인생이 재미가 없었다. 사람들은 힘든 것보다 평안한 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파분한 시간을 오래 보내면서 고생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매일 집에서 스마트폰만 보면서 파분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파워임팩트에서 아웃리치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말 재미있어 보였다. 그렇게 간 파워임팩트 필리핀 아웃리치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다. 신앙이 성장하고, 사회성을 기를 수 있었다. 내가 가진 용돈을

모두 필리핀 교회에 헌금했는데 그 사실이 나조차 놀라웠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면서 배울 점이 많았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다윗이 성을 버리고 옷을 찢고 울며 도망갈 때 그의 곁을 지켜준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주고, 내 생각을 발전하게 도와줬다. 코로나19로 가지 못했던 교회수련회도 두 번이나 참석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다. 요즘은 매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있다.

고등학교를 충남에 있는 기독교 기숙학교로 다니게 된 것도 은혜다. 대안학교이기에 다양한 것을 체험하고, 매주 금요일 찬양예배를 드리고,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이 특별한 생활이 참 재미있다. 얼마 전 기숙사에서 자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그동안 부모님께 받았던 사랑이 하나둘 떠올랐다. 모든 것에 감사했더니 은혜가 넘쳤다. 엄청난 행복을 느꼈다.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나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고 있어서 행복하다.

장로칼럼

인도네시아 선교기도회



박용국 장로
(이촌공동체)

몇 개월 전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기도회’ (이하 인선회)를 하고 있다. 인선회는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함께 모여 선교사역과 선교지, 선교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다. 이 기도회가 참 특별하고 감사한 것은 10여 개 각기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기 때문이다. 인선회 식구들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다.

이 특별한 기도회를 온누리교회가 섬기고 있다. 교회 공간을 내어주고, 매번 다과도 내어준다. 온누리교회 성도로 이루어진 기도회가 아니고, 온누리교회 사역팀도 아닌데도 말이다. ‘Acts29 비전’을 따라서 선교하는 공동체를 정성껏 섬겨주는 손길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온누리교회의 따뜻한 배려를 받은 인선회 식구들이 온누리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다.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온누리교회와 온누리교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기도회 때마다 부르짖고 있다. 온누리교회 또 하나의 기도 동역자가 생긴 것이다. 이 아름다운 섬김의 동역, 기도의 동역이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한다.

사실 인선회가 온누리교회와 아주 관련 없는 것은 아니다. 하용조 목사님 생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한남동 기도모임’이 인선회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초창기 이상자 권사님 댁에서 30여 명이 모여 기도했다. 그때나도 기도모임에 2~3년 정도 참석하다가 인도네시아로 파견근무를 갔다. 인도네시아에

서도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에 현지 교회를 찾아갔는데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다. 선교사님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를 위해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한남동 기도모임이 떠올랐다. 그렇게 인선회가 시작됐다.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던 당시 그곳에 한인교회가 두 곳 있었다. 기도모임이 시작되고 두 교회 성도들이 하나둘 모였다. 40여 명이 인선회 회원이 되어서 인도네시아 선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다.

인선회 회원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도왔다. 자동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오지에는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가 선교사님들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 2년 정도 모임이 이어지다가 각자 근무 임기가 차서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와서도 인선회가 계속 이어졌다. 각자 다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성도들이었는데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계속 한 자리에 모였다. 분당, 파주, 일산, 인천 등 먼 지역에 사는 분들도 서울에서 모여 함께 기도했다.

한국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섬기는 사역도 시작했다. 당시 이 사정을 아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을 섬기라”며 매월 후원금을 주셨다. 큰 도움을 받았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중에 목회자가 나오기도 했다. 기도하는 마음을 모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지금도 인선회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다. 각기 다른 교회에서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로 매월 스무 명 남짓 모인다. 이 기도회에 더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모이기를 소망한다. 기도의 동역자들이 더 많아져서 선교의 열매가 더 많이 맺히기를 기도한다.

문의: 010-3741-9167

권사칼럼

하나님의 때(時)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유월이 코앞에서 벌름댄다. 작약꽃 잎사귀 무성한 사이로 봉긋한 꽃망울이 사춘기 소녀 볼처럼 붉었다. 언제쯤이면 필까? 기다리며 프락을 서성인다. 드디어 오늘 아침에는 감춰던 열정을 터트리며 꽃잎이 벌었다. 하루 밤새 흐드러진 모란의 자태에 넋을 잃는다. 꽃도 때가 되어야 핀다. 때가 되면 피고 지기에 3월이 되면 진달래 필 때가 기다려지고, 6월이 오면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설렘이 있다.

살면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서로 같지 않을 때 우리는 늘 조금하고 좌절하게 된다.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고 염원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질 때 땅에서도 매인 매듭이 풀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그간 삶의 과정을 통해 무수히 경험했다. 욕심을 버리고 내 삶을 유한한 나의 눈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분이 일하시는 때를 기다리자. 화사하게 치장했던 꽃이 떨어져야 빗나무 가지에서 새잎이 터지듯 내 후패한 속사람이 세상 옷을 벗어 버려야 새 부대에 담길 영적인 열매도 풍성할 것이다.

몇 달 전 4층 전세 세입자 2세대에서 만기가 되면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해 왔다. 한 집은 임대 아파트가 당첨되어 나가야 하고, 다른 한 집은 자녀의 학교 문제로 부득이 이사해야 한다. 부동산에 전세매물을 내놓고 기다렸다. 만기 날짜는 바둑바둑 다가오는데 매스컴에서 강릉 전세가 이슈화되더니 빌라왕 전세사건이 터지면서 전세매물 찾는 사람을 구

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 보증금은 집 지을 때 자금으로 들어간 터라 많은 목돈을 일시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내 능력 밖의 일이었다. 이리저리 대출도 알아보았지만, 우리 같은 은퇴자에게 은행 문턱은 높기만 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기댈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두 손 들고 그분께서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며 잠잠히 기도하며 도움을 간구했다. 주변의 기도 동역자들에게도 함께 중보기도 해줄 것을 부탁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아파트 당첨 계약금도 반환받지 못하고, 계약도 해지가 될 위기 상황이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 기도의 분량이 찼는지 서서히 닫혔던 빗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별 기대도 없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래도 없던 새마을금고에 상담차 들렀다. 흔쾌히 거액의 대출을 약속받았다. 그날 부동산에서 월세 세입자와 계약하지는 연락을 받았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 또 다른 세입자는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반전되어 연장해서 더 살기로 했다. 내가 기도하고도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주밀하신 계획에 감사함과 두려움마저 느껴졌다.

오고 감의 질서를 따라 순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위대함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셨다. 내가 쓰러진 자리에서 손 내미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신다. 나의 때를 고집하며 그분에게 떼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정확히 역사하신다. 기쁨과 감사로 간증을 나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온누리호스피스스쿨)

89세 되신 한 원로목사님이 ‘온누리호스피스스쿨’을 수료하셨다. 수료자 대표로 그분께 수료증을 드렸다. 수료증을 드리는 내가 더 민망했다. 내가 그분께 수료증을 받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귀한 목사님께 수료 소감을 부탁드렸는데, 그분의 간증이 정말 소중하고, 인상 깊어서 나누고 싶다.

“저는 어려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 3년 있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곳에 들어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잡혀서 그곳에 수용되었습니다. 나라가 원망이 되고, 상황이 원망이 되고,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고, 마음에 들

지 않았습니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이 수용소에 잡혀 오셨습니

그 선교사님은 잡혀 오자마자 포로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달리 할 일도 없었기에 저도 그곳에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들던 중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 선교사님이 ‘이 나라에 목회자가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 중에 목사가 될 사람은 손드세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내 손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어처구니없고 원망스러운 거제도 포로수용소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교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는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고,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선

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 치도 실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저의 원망이 감사로, 저의 불만이 눈물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나이가 89세지만 아직도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탓! 탓! 탓!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찬양으로 봉사할 수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89세 할아버지를 받아주신 온누리호스피스스쿨과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수업도 잘못 따라가는데 항상 환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잘 섬기고 봉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제주에서 한 장례식에 참석했다. 90세 되신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장례식에 동행했던 장로장립 후보 집사님의 따님이 바로 그 시간에 서울에서 아들을 낳

았다. 출산 직전 전화로 축복과 평안의 기도를 해줬다.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는 장면이 있었다.

생명의 주관자, 계획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날마다 그리고 오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이다.

그 원로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멋지게 늙어가고 싶은 강렬한 소망이 생겼다. 나도 89세 되었을 때 여전히 배우는 자리, 섬기는 자리, 나눔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련다. 교회 안과 밖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00 분당
3부 오후 1:00 분당 4부 오후 3: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분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분당, 비전홀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일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목요일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일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일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호, 매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방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뻐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플동조합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11:00 703호 / 미얀마어 11:00 706호 / 차세대꿈방 11:00 705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몽골어 19:00 706호 / 파워웨이브 토요일 14:00 706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영어) 주일 11:00 301호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304호 / 힌디어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 토요일 20:00 304호 / 차세대 주일 14:00 309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수요일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수요일 오전 9:30-10:20
장소: 서빙고 콘서트를, 양재 온유홀
문의: 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선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2496-2319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TP 42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기간: 10월 2일~27일 (4주간)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자격: 선교지에서 1~2년간 사역하기를 원하는 자
접수: www.visionvillage.org 홈페이지 신청서
마감: 8월 25일(금)
문의: 031-331-8180, 8213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분야별 개발자(프로그래머) 2명, 정기구독 상담원 1명, 해외저작권 업무 1명, 출판디자인 1명
형태: 정규직(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초1~중1(타캠퍼스, 타교인 지원 가능)
연습: 매주 토 1~4시(후주 주일 연습 재개)
장소: 서빙고 성가대실(지하 1층)
지휘: 최영은 성가사
문의: 010-8285-6435

양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형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보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아주민, 난민 의료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다문화 가정의 차세대를 위한 기도자 모임

일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양재 JDS홀
문의: 010-6422-8376

온누리M센터 네팔 셀터 후원품

모집: 그릇, 접시 등을 포함한 식기류, 프라이팬, 냄비 등을 포함한 조리도구, 6인용 이상의 밥솥, 베게 및 이불, 침구류
문의: 정연웅 간사(031-491-965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9: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일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토요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사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분당

수요일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일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분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6부 19:00 / 세종교육관 분당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분당 / 6:00 세종교육관 분당
수요일예배 매주 수 10:00 분당
수요일예배 매주 수 19:30 분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팡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1: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이스) 14:00 / 3부(프라이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10:30 분당

수요일예배 19:30 분당

금요일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분당

남양주 031.565.9686

토요일예배 10:30 3층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지녀)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팡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분당

수요일예배 오전 10:30 3층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30 3층 분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팡홀 / 초등부 11:30 2층 꿈팡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팡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양지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분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일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 금요일예배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영종 032.752.79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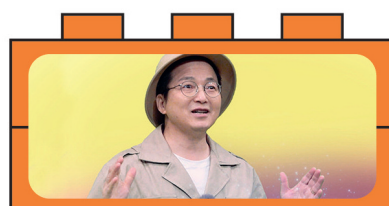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백향목홀(3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어린이를 위한 성막사용설명서

바이블록 성막대작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장소, 성막!
블록으로 쉽고 재미있게 성막을 만들며
예배의 중요성을 배워보아요!



출연 : 김경열 교수(성막박사), 김원구(뚝이), 김서희(딱이), 이효비(라엘)

CGN 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